

# 국립박물관 3곳 불교전시실 운영

12월 개관 20주년을 맞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불교전시실을 대폭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국립박물관의 불교전시실 설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9개 국립박물관 가운데 불교전시실이 있는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부여박물관·광주박물관 등 세 곳, 대다수 박물관들이 불교유물을 일반 유물들과 같이 전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문화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독특한 성격을 살리려면 테마별 기획이 가능한 불교전시실 설치에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박물관의 불교전시실은 박물관 중앙홀에 몇 점의 불교유물만을 놓아둔 것이어서 불교전시실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으로 박물관 측에서도 유물 확보 등 새 단장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박물관이라 할 중앙박물관은 지하 1층 불교조각실에 불교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조각에 치우치고 있어 전반적인 불교문화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역사적 흐름-주제별 전시 불교적 의미 정확히 전달 문화재중 불교유물 60% 이상

불교문화재가 많은 국립중앙박물관은 본관 고분관 안압지관 등 3개 상설전시관 가운데 본관에 위치한 미술공예실이 불교전시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수용하지 못한 석조불상, 석탑, 범종 등은 야외 전시실에, 고려시대 불상, 반자(飯子)는 국은기념실 등에 분산되어 있어 역사적 흐름이나 주제별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4개의 상설전시실과 어린이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청주 흥덕사를 비롯한 사지 출토 유

물들과 계유명 아미타삼존불비상(국보 106호) 등이 전시되어 있을 뿐이다. 고고실 한편에 익산 마륵사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놓은 국립전주박물관은 불교유물들이 이리 저리 흩어져 전시되고 있다. 금속활자본 사이에 놓인 금강경관을 설명을 읽지 않고 알아 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구·공주박물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으로 탈바꿈한 국립전주박물관의 경우 임란관련 유물이 전시되고 있는데 전문박물관에 맞춰 '승병' 관련 불교코너를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불상과 예술이 어우러져 탄생한 불교 문화재는 일반 문화재와는 다른 차원의 전문적인 테마 전시실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국립박물관인 만큼 유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아니라 불교적인 의미가 포함된 자세한 안내가 가미돼야 한층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 불심시심 <155>

#### 보시와 은혜 값음

晚卜幽居地 (만복유거지)	늦게 조용히 살 땅을 가리
悠然遠市村 (유연원시촌)	유유히 시정 마을 멀리해
吟詩酬勝節 (음시수승절)	시 읊어 좋은 계절 수답하고
濯水濯花園 (택수관화원)	물 풀어 꽃동산에 대다
有鶴聽經語 (유학청경어)	학이 있어 경전 언어 들을 수 있고
無人問俗論 (무인문속론)	사람 없어 속세 논란 묻지도 않다
優遊終老此 (유유종로차)	여유 있게 놀아 끝내 여기서 늙음이
是亦信施思 (시역신시)	보시와 은혜 받을 믿고 값음이지.

함홍대사(涵弘, 1805~1878)의 '그윽히 살다(幽居)'라 한 시이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질이 있었으나 조실부모하여 13세에 송암(松庵)화상을 찾아 출가했으니 송암은 속가의 숙부였다.

대사의 문집은 <涵弘堂集>으로 2권이 전하고 있는데 권 1에서 214편이 전하고 있다. 서문에는 "마음을 관찰하는 법이나 가르침이 은미한 것인데 글로 드러내니 불가의 다량스러운 일이다"하여 대사의 글이 불리의 흥포에 유익했음을 밝히고 있다.

위의 시는 대사가 만년의 거처를 만성암(晩暎庵)으로 옮겼을 때 지음이 아난가 여겨진다. 스님의 생활이 평상시에도 저자거리나 마을을 멀리하는 것이지만 여기를 다시 더 강조한 것을 보면, 끝내 여기서 늙겠다는 각오인 듯 하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 '직지' 소재 오페라 나온다

2000년 4월경 '무대에' ... '직지찾기'에 한몫 할듯

<직지삼세오절>(이하 '직지'). 고려 공민왕 21(1372년)에 백운화상이 편찬해 우왕 3년(1377년) 흥덕사에서 간행된 세계최고 금속활자본. 1440년에 제작된 독일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본(세계의 실판)보다 63년이 나 먼저 만들어진 <직지>의 하인 1책이 구한말 유출되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지만 관계자들은 국내에도 다른 <직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직지찾기운동본부'를 결성, 직지 찾기에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직지>를 소재로 한 초대형 오페라가 준비되고 있다. 청주시문화관광과와 고인쇄박물관, 그리고 충북대 김승환 교수와 청주대 김태훈 교수는 <직지>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페라를 만들어 공연하기로 하고 오페라 제작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곧 발족시킬 예정이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 대본을 완성해 권위있는 음악가에게 작곡을 의뢰, 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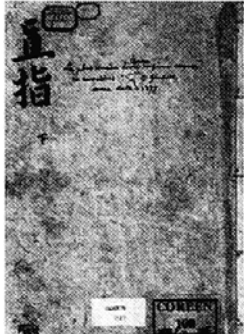
2000년 4월경 청주와 서울에서 무대에 올린다는 계획.

오페라 직지는 몽고와 고려의 개성, 청주, 일본 쓰시마 등 당시 빠르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고려말 민초들의 수난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로 고난을 헤쳐가는 한 여성의 삶과 사랑 이야기가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페라 직지를 준비하고 있는 시 관계자에 따르면 출연진만 5백여명, 총 제작비 5억원 등 초대형 오페라로 꾸며 치밀한 공연 문화에 새 전기를 일으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계에서는 오페라 '직지'가 공연된다면 '직지'의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해 '직지'찾기 불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gsllee@buddhapia.com)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세계최고 금속활자본 '직지'.

### 명현스님 구도소설 '수령속에 푸른꽃'

## '존재의 이유' 찾는 사람들 이야기

우리는 늘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삶의 방향을 뒤바꾸어 놓는다. 때로는 삶의 질조차도. 만약 깨달음의 길과 한 인간을 업장에서 구해내야 하는 갈등의 기로에 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명현스님(동도사 교무국장·사진)의 구도소설 <수령속에 푸른꽃>(동남기획 펴냄)은 고해의 바다에서 업보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존재의 이유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참자리를 찾아 가는 길을 제시한다.

자신이 접한 남자들의 잇따른 죽음과 아내를 살해한 아들로 인해 충격을 받은 수진은 죽음을 결심한다. 그러나 그녀가 머물렀던 사찰의 진공스님에 의해 목숨을 건지게 되고, 두 사람의 인연은 새로운 고통을 낳는다. 진공은 불행에 빠진 한 증생을 구하고자 하나 수진은 자신을 남자로 여기고 접근해야 할 계를 느끼고 세속의 스승 운동에게 도움을 청한다. 운동은 수진의 전생을 들여다보고 수진이 전생에 목숨을 걸고 사

랑했던 남자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진공은 출가 이후 가장 큰 번뇌에 빠진다. 그러나 번뇌하는 진공을 보고 수진은 떠나기로 결심하고, 진공 또한 구도의 길을 떠난다.

수진의 삶과 진공의 끝없는 구도의 결을 통해 저자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명현스님은 "이 소설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 나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여야 했던 수많은 관념들,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생으로부터 지고 온 업이란 관념의 덩어리를 부수어 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 소설은 실존론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업장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덕의 길임을 말한다.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펼쳐지는 하얀 여백, 그 마음의 여백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유, 이 소설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값 7천원.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 불우이웃돕기 청원스님 작품전 3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금강불교조각연구소 대표 청원스님이 3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전시관에서 '불우이웃돕기 조각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작품전에는 제17



회 불교미술대전 금상작인 '아미타삼존불(한주영작)'을 비롯한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등 여러 불상과 업경대, 삼존불상, 법상(사진), 발우 등 불교용품과 찻상, 과반, 조병통, 장승 등 생활공예품 모두 6백여 점이 전시된다. (051)972-3812



장보고의 정도청해진복원조각도

## 완도 청해진유적 정비 법화사지 복원은 유보

완도군은 2002년까지 해상왕 장보고의 활동근거지였던 정도 청해진 유적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통일신라시대 성곽 성문 등 유적을 재현하는 등 종합관광단지 조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정비 계획에는 장보고가 창건한 법화사 복원 부문은 유보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법화사지 일리진, 장좌리에서 상항봉에 오르는 길목의 사지는 법화사가 아니라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돼 완도군이 법화사지 조사에 다시 나선다. 90년 문화재연구소 발굴팀은 장좌리에서 상항봉에 오르는 길목에 위치한 사지를 법화사지 추정했다고 주장리에 위치한 사지 두 곳이 인근 마을에서도 구건으로 전해오는 등 신빙성이 있어 지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완도군청은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표조사에 착수해 사지 복원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mct.go.kr:700/

## 국내 최대 '사이버문화관' 개설

유물·유적·명소등  
2천여건 열람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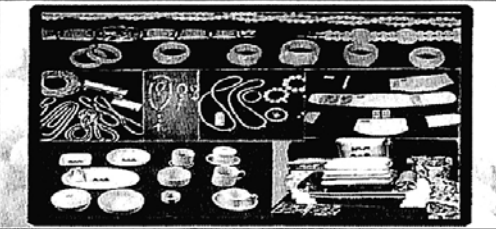
전국의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물, 유적, 명소, 축제 등의 문화적 볼거리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문화관'이 개설됐다.

경향신문사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개설한 '사이버문화관'에는 독립기념관처럼 대형 문화기관이 내놓은 유명 문화유산들도 있지만 공주민속박물관이나 거창지역정보센터처럼 쉽게 찾아가기 힘든 지방의 문

화관 소장 자료도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민속박물관 △전경기념사업회 △전국문화원연합회 △국립국악원 등의 메뉴가 개설된 '사이버문화관'에서는 민속유물 540점, 전경기념품 92점, 향토축제 400건, 독립운동사 유물 578점, 각종 악기 자료 420건 등이 등재되어 있다.

이밖에도 이대·고려대·성균관대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목야불교박물관, 대구·공주시립도서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도 '사이버문화관'을 통해 볼수 있다. 주소는 http://www.mct.go.kr:700/

## 천축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목걸이 착용 10분후 썩은 손의 문관 파진이 활발하다  
인육 사용전 1.5μV 인육사용후 3.0μV로 체내전압 상승

###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장건,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핏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대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어 내치명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옥산가 옥의 위약작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체의 소위파동에 전옥은 변명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레밍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분주 순수

玉山家 (02)777-0105 (우원관내)

##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이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가를 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 심야전력기 보일러  
기존 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등피의 열기가 없습니다.

▶ 심야전력기 온수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등피의 열기가 없습니다.

▶ 심야전력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하므로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난방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마루방 난방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심야전력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난방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마루방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문의전화 0343)468-7200(대)  
0343)445-6090  
FAX: 0343)445-3370

"심야전력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0기 佛敎儀式(범음·범패) 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사물(목탁, 요령, 태정, 범고) 다루는 법, 도량성,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전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법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정규과정(1년제) 추가모집
- 의식전문법사과정(2년제)
- ◆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 ◆ 교육기간: 3개월 (각과정)
- ◆ 원서접수: 1998년 12월 14일(토)~99년 1월 11일
- ◆ 개강일시: 1999년 1월 12일 오후 5시 정각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관련 제공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통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로구 낙원동 243-3  
탐골공원 뒤 허리우드극장 옆 경동빌딩 3층  
☎ (02) 741-0495, 0496

해동불교 범음대학  
海東佛敎儀式教育院

## 순수한 명연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 반야심경



정음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필자 佛敎 龍宇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성명: (주) (02)242-0331, 242-0255 (02)216-0307, 011-471-1996

주요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정준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藝術文化院 韓國佛敎禪墨家協會